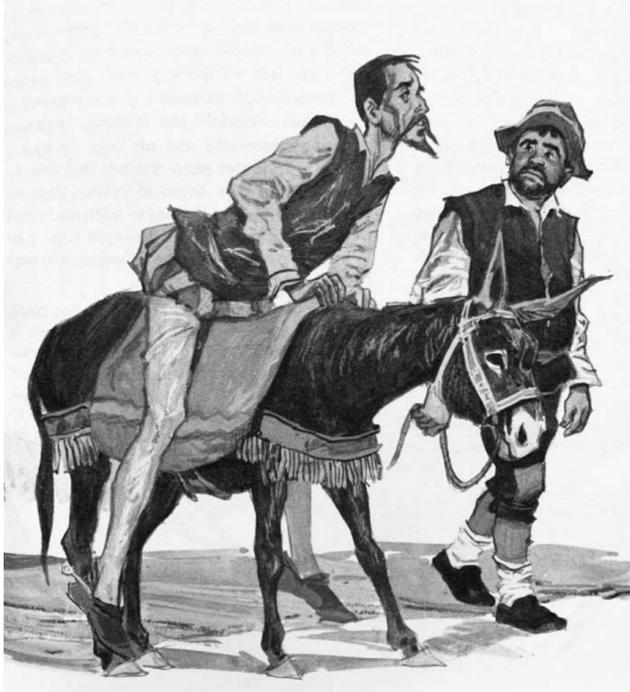


[독서노트]

■ 안병

돈끼호테 ‘미쳐서 살고 제정신에 죽다’



‘돈끼호테’라고 하면 어린시절 교과서에서 읽었던 풍자를 향해 돌진하는 미치광이 정도로 기억되었다. 이제 서야 정식으로 원작을 완독하게 되었다. 때면 사고 치고 얻어터지는 주인공의 에피소드들에 혀를 끝끝 차면서 말이다. 그러나 결말과 함께 책을 덮은 순간 세차게 뛰는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한참을 설레어야만 했다.

◎ 독서에 미쳐도 좋아

리만차지역의 한 마을에 사는 이달고(하층귀족) 알론소 키하노는 기사 소설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분별력을 잃고 만다. 몸소 세상에 정의의 나라이고 불의를 타파하며 약자를 돕겠다는 원대한 꿈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름부터 기사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돈끼호테 데 라만차’로 고친다. 그리고 이웃마을의 촌부 알론사 로렌소를 사랑하는 녀인으로 정하고 ‘돌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이름의 공주이자 귀부인으로 격상시킨다. 그다음 증조할아버지로부터 대물림받은 낡

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로시난테’라 이름 지은 비쩍 마른 말을 타고 모험에 나선다.

독서에 너무 열광한 나머지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 이런 설정에 멈춰진다. 독서는 위험하다? 과연 기사소설에 미쳐버린 주인공을 비웃어야 할까? 현실이 매마르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것, 멋지지 않은가? 나는 종종 ‘독서가 고프다’. 끼니가 되면 배가 고프듯 멘탈이 바다나면 책이 당긴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돈끼호테를 웃었지만 그에 공감하고 있는 나를 보았다.

◎ 꿈은 항상 가능하다

모험을 위해 우습강스러운 모습으로 길을 나설 때 돈끼호테의 나이가 늙어 가까웠다고 한다. 작품이 씌여진 17세기 초반(참고로 《돈끼호테》 제1부는 1605년에, 제2부는 1615년에 발표되었다.)의 인구 수명으로 치면 한심한 로인네라고 보아야 할 나이

였다. 첫 모험에서 만신창이 되어 돌아오지만 몸을 추스리고 나서 산초 판사라는 농부를 설득하여 종자로 삼고 다시 길을 떠난다.

그리고 두번째 모험에서 돈끼호테를 구원하고자 온갖 애를 쓴 같은 마을의 신부와 리발사에 의해 달구지에 실려 귀향하지만 또다시 산초와 함께 세번째 모험에 나선다.

삶이 종말에 이르러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면 다들 말리기 마련이다. 작품 속 한마을에 사는 신부와 리발사도 돈끼호테를 광기로부터 끌어내려져 책들을 다 불태우고 서재를 벽으로 막아버리기까지 한다.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라는 말을 많이 한다. 꿈을 향한 도전이 젊은이들의 특권이거나 한 듯 말이다. ‘아직 젊었을 때 도전하라고 지나온 사람 입장에서 조언도 자주 한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현실에 안주해야 한다는 핑계가 아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도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져서 ‘때가 지났다’고 판단할 뿐이다. 앙리 베르그송은 “넘어지는 것은 물론 똑같다. 하지만 한눈을 팔다가 우물에 빠지는 것과 별만 바라보다가 우물에 빠지는 것은 다르다. 돈끼호테가 열심히 보았던 것은 바로 별이다. 이 공상과 망상의 정신이 추구한 웃음의 깊이는 얼마나 심오한가.”라고 말한다. 돈끼호테의 도전은 세번 다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제1부에서 온갖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치고 다니던 돈끼호테가 제2부에서 온 세상이 다 아는 인물이 되어있다. 물론 미치광이로 알려졌지만 말이다.

◎ 내 안의 ‘돈끼호테’를 깨우라

《돈끼호테》를 다 읽고 나면 갑옷차림에 말을 탄 ‘슬픈 물결의 기사’ 돈끼호테와 그 뒤를 따르는 작달막하고 뚱뚱한 종자 산초의 모습이 떠오른다. 돌아가는 풍자를 거인이라며 덤비고 두무리 양떼를 군대라고 하며 돌진하는 돈끼호테, 갤리선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을 해방시키고 되려 죄수들의 돌팔매질에 만신창이 되는 돈끼호테, 객주집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가죽부대를 갈로 찢어 엉망진창으로 만드

는 돈끼호테, 우리 안의 사자를 풀어 놓으라 호령하며 당당하게 야수를 마주하던 돈끼호테... 산초가 아무리 애걸하고 말려도 그는 막무가내이다. 이런 하나하나의 생동한 화면들로 참 많은 웃음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웃고 웃다가 어느 순간 가슴 뭉클한 감동이 찾아온다.

세번째 모험에서 돌아온 돈끼호테가 다시 평범한 인간 알론소 키하노가 되어 죽음을 맞이한다. 어서 일어나 기사로 모험을 찾아 다시 나가자며 오열을 터뜨리는 산초와 함께 내 안에 넘쳐드는 슬픔을 마주하게 되었다.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나약하게 죽어가는 인간적인 모습이었지만 용기 넘친 질주로 가득찬 삶이었기에 아쉬움이 더 짙었던 것 같다.

우리는 항상 우유부단한 햄리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나이가 들수록 앞뒤를 재고 리해득실을 계산하고 후과를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배회한다. ‘단호한 한명의 돈끼호테가 주저하는 아흔아홉명의 햄리트를 이끌지도 못한다’고 한다. 모두가 인정하는 똑똑이로 살고자 현실에 길들여진 채 ‘나 자신’이기를 포기할 것인지, 온 세상이 비웃더라도 끈기있게 자아를 고집하는 돈끼호테로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말한다. 어차피 한번의 인생이다. 무지컬 <이룰 수 없는 꿈>(the impossible dream)의 가사처럼 한번 쯤은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감히 달지 못할 밤하늘의 별을 향해 두 팔을 뻗쳐보는” 건 어떨까?

치러하게 달리다 간 삶은 아름답다!



‘룡하컵’ 소학생 사랑송 · 동화구연 · 웅변대회 시상식 연변도서관서



새시대 전민독서 시범보급 활동 항목의 하나로, 연변독서절 계절행사의 일환으로 연변도서관에서 주최하고 연변시랑송협회에서 주관한 제 14회 ‘룡하컵’ 소학생 사랑송 · 동화구연 · 웅변경연 시상식이 8월 15일 오전 연변도서관에서 있었다.

‘룡하컵’ 소학생 사랑송 · 동화구연 · 웅변대회는 이미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124명 학생의 참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온라인을 통하여 114명의 랑송 이야기 영상을 접수하여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박수빈(료녕성 대련시고신원구제 2 소학교 1학년 1반), 리소현(연변대학사범분원 부속소학교 3학년 3반)이 대상

을, 량지현(료녕성 대련시조선족소학교 1학년), 안현찬(룡정시 실험소학교 1학년 2반), 리윤림(길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1학년 2반), 강지윤(길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2학년 2반), 김준우(연길시공원소학교 2학년 2반) 등 8명이 금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이외 은상 16명, 동상 24명, 우수상 31명, 도전상 33명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 연변도서관 김혁관장은 2016년 이래 연변도서관 주최로 진행해온 ‘룡하컵’은 새시대 전민독서 시범보급 활동 항목 가운데 하나로 청소년들의 량호한 독서 습관과 독서 취미를 양성하고 사회활동을 활성화하며 정서를 함양함과 더불어 학습중량 열조를 불러일으키고 구두어 표달 능력을 단련하며 종합소양을 제고하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펼쳐왔다고 밝혔다.

연변시랑송협회 송미자 회장에 따르면 ‘룡하컵’ 행사는 지난 2014년에 룡하수력수리발전유한회사 리급속 경리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고 선뜻 후원해 나서서부터 지금까지 전국 각지로부터 천여명 학생들이 이 무대에서 장가를 선보였다.

/ 안상근기자

책 읽기 여부에 따라 다른 인생 산다

1. 시야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세상을 가장 쉽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 있다. 그리고 “이 큰바 세상을 안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한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갈래 있는 것인데 책 읽기를 통해 그 부동한 면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다.”는 대답이 큰 공감을 얻었다.

한권의 좋은 책은 마치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하나의 문과도 같다. 읽은 책이 많으면 이 세상에는 한가지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갈래 되고 부동한 견해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가지게 된다.

한 사람의 인생의 높이는 바로 그가 발밑에 둔 책의 두께이다. 독서를 통해 언제든 지 어느 곳이라도 도달할 수 있고 미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탐험할 수 있다.

2. 의문점에 대하여

우리가 읽은 모든 책들은 우리의 생각을 위한 힘의 축적이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처세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삶을 잘 영위해 나간다.

만약 곤혹을 느낀다면 책을 펼쳐 보라. 다음 페이지에서 어쩌면 원하는 답안을 얻을 수도 있다. 책을 읽으면 리치를 알 수 있고 문제에 대한 해답도 더욱 잘 해결할 수 있다. 많이 읽고 많이 사고하는 사람일수록 어제의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된다.

생활에서의 궁금증과 의문점들은 모두 책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막막함을 쫓거나 아니면 평범함에 대항하거나를 막론하고 독서는 가장 간단하고도 실용적인

방법이다.

3. 표달에 대하여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감수가 다르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지각 능력과 표달 능력을 부단히 제고시킬 수 있다.

책을 한권 또 한권 읽다가 일정한 정도의 축적에 이르게 되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말로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맘껏 표달을 할 수 있다. 그러간 하면 머릿속에 쌓은 지혜로 전설적인 지난 일들과 공명을 가질 수 있다.

독서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읽은 글자는 결국 자양분이 되어 성장의 에너지로 제공해준다. 더 불어 나날이 당신의 기질에 영향을 주고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당신의 영혼을 풍부히 해준다.

4. 인생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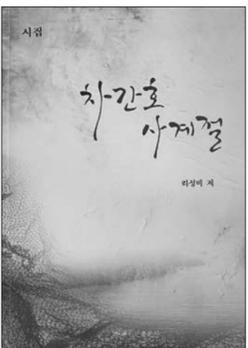
“력사를 읽으면 명지해지고 시를 읽으면 우수해진다.”는 속담이 있다. 독서의 좋은 점은 바로 자아와 세계의 창구를 열어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책을 심도있게 읽을수록 우리는 사회와 인생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게 되고 마음속에도 확신이 생기게 된다.

매 한번의 열독은 모두 한차례 사상을 각성시키는 과정이다.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인생에서 자신의 협애함을 버리고 더욱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독서하라. 읽은 책이 충분히 많을 때면 당신은 생명의 광활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앞길이 막막하다 하더라도 당신은 두려움없이 감히 다음에 맞닥뜨릴 미지의 고통에 오를 수 있다.

/ 인민일보

[책소개]



리성비 시집 《차간호 사계절》 출간

리성비의 아홉번째 시집 《차간호 사계절》이 연변인민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시집에 수록된 133수의 시는 차간호에 대한 저자의 탐색이다. 시집은 ‘차간호의 봄’, ‘차간호의 여름’, ‘차간호의 가을’, ‘차간호의 겨울’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차간호의 사계절을 상세히 그려내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 “나는 마치 전생애 차간호와 그 무슨 뿌리 깊은 인연이라도 있는 듯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의 신비한 매력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고 적었으며 “차간호는 나에게 생태환경과 생태문화의 진귀한 보석을 한보따리 선물하였다. 나는 이 보석들을 차간호를 사랑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간호는 국가급 자연보호구, 국가 4A급 풍경구, 국가급 수리풍경구이며 ‘차간호 겨울철 물고기 사냥 전통의식’은 2000년의 력사를 자랑하고 있는바 일찍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차간호 관광지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리성비는 중국작가협회 회원이고

중국민간문예가협회 회원이며 로신문학원 고급연수반 제 4기를 수료했다. 길림성민간문예가협회 부주석, 연변민간문예가협회 주석, 연변작가협회 시장작위위원의 주임, 연변무형문화유산전문가위원회의 주임을 력임했다.

시집 《이슬 꿰는 빛》, 《눈을 뜨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문둥이 달빛》, 《아, 달빛 푸른 옛날이여》 등 출간 경력이 있으며 길림성 장백산문예상, 연변조선족자치주 진달래문예상 등 수상 경력이 있다.

/ 리련화

도서 향기 가득 ‘20 살’ 상해도서전시회

8월 14일, 2024년 상해도서전시회 및 ‘서향중국’ 상해주간이 상해전람중심에서 막을 올리면서 현장을 찾은 사람들로 인기가 폭발했다.

료해에 따르면 올해는 제 20회째로 맞는 상해도서전시회이다. 2004년 초기 설립에서 장대해지고 또 업그레이드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20년 력사의 상해도서전시회는 도시의 집체 기억이 스며들면서 점차 중국의 년도 중요 도서 신상품 첫 발행지, 독자들의 열독 풍향계,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서전시회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이번 상해도서전시회는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이어졌다.

한편 주최측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상해도서전시회의 오프라인 도서 판매 총량(总码洋)은 4,814만 8,300 원으로 2023년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통계 범주에 들어간 문화창작제품(文创产品) 판매 수입은 근 500 만원에 달했다. 웨이보, 틱톡, B 사이트, 소홍서 등 플랫폼에서 상해도서전시회 관련 화제의 총 열독 교류량은 10 억자를 넘었다.

/ 인민넷

